



2011 **11**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23호

발행:이중섭 / 총무 :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wing44@paran.com

10월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이영부

동창회 참석 전에 소감을 회보에 기고해보라는 졸업50주년행사 추진위원장의 권유에 글 솜씨도 그렇거니와 염치도 없어 손사래를 쳤지만 재삼 거절하기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한편 반전의 묘도 있겠구나 싶어 응하게 되었습니다.

승낙하고 보니 우선 3가지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진리와 이상을 실현하셨던 은사님들, 아름다운 교정과 완월초등학교 담장과 돌담사이로 곧게 뻗은 통학로, 그곳은 우리들에게 낭만과 끈음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1959년 입학식 날의 설레던 첫 만남은 21회 동기생이라는 운명 이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총기와 패기가 넘쳐흘렀으며 때로는 오만함까지 느끼게 하였던 젊은 초상들, 재능과 자질로 미루어 모두가 자기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리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슬픈 소식도 접하였지만 그때의 믿음도 현실화되어 갔습니다. 졸업 후 반백년 이런저런 뚜렷한 이유도 없어 참석을 미루어왔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두 녀석의 아버지가 되어 손자들을 거두어주기로 약속한 관계로 최근 6년간 서울에서 지내다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사무실에 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던 고정멤버들..... 그들의 친절에 감사를 드리며 몇 십 년만의 통화에서 담박 목소리를 알아보던 우정에 감동을 느꼈기에 이제야 만나야겠다는 각박감이 밀려듭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딱히 풀 보기 싫은 친구도 없었는데.....

모두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고 그 속에 여유와 너그러움까지 녹아있어 세월을 실감나게 하는 7순의 할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 회포라도 풀어야지.....

중략하고, 며칠 전 갑작스러운 비보에 또 한 번 가슴이 뺨 뚫렸습니다. 고인과는 내무부에서 경남도청으로 처음 전보되었을 때 고인의 집무실에서 가끔 차를 마시곤 하였습니다. 굵은 태안경 너머로 하얀얼굴 독특한 음색 친절하고 점잖은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옷깃이 여며집니다. 무엇이 보기 싫고 속상해서 그렇게 바빠 운명을 재촉하였는지.....

가을비가 제법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우울해집니다. 이제 이승의 모든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십시오.

삼가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10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회비	830,000	김동열 박영환 신용보	회보		
		정안정 지해경 각15만원	200,000	인쇄(봉투포함)	
		장정치 5만원	84,840	발송(주소복사포함)	
		정창봉 3만원	518,000	고바우집	
광고	60,000	구해룡	경조비		
모금함	135,000	동창회사무실	200,000	강동균 혼가 10만원 변민욱 상가 10만원	
			관리비	109,600	동창회사무실
			정수기	19,900	
			유선비	5,500	
			수당	150,000	
수입계	1,025,000		지출계	1,287,840	
전기이월	139,129		차기이월	-123,711	
합계	1,164,129		합계	1,164,129	

- 임플란트
- 치아성형
- 치아미백
- 심미보철
- 구강외과
- 잇몸질환
- 레이저치료
- 충치, 신경치료

리 모 치 과

원장 구리모(구해룡의 아들)

055-346-7528

김해 진영읍 진영리 1626-4 경남빌딩 401호

진영구시가지

본산공단

● 자이아파트

● 신한은행

● 진영지점

● 소방서

● 리모치과

경남은행4층

졸업50주년행사
날짜변경 짐정유보
2012. 5. 13 ☞ ?

3가 , 가 , 6
3 , 가
1. 3 6
4 5
2. 5
가
3.
2, 3 가 , 1
가 ,
3 6 2012 6 3 가 10
10

행사추진현황

1. 추가신청 및 희망자

(3)	(2)	(2)	
(12)			

2. 밴쿠버 김남수 동문 금일봉기탁

故 50 50 가 가

3. 곽호남 동문 협찬

100 가

4. 어호 동문 협찬

100 가

5. 지면부족으로 지난 10월 회보에 누락된 기사

9 21 , 가 가

해외동문현황(2)

〈네 번째 소식〉 바둑을 잘 뒀던 이중대
6 가

5 6 가
3, 4 가
KORTA
15 가
25 가 가
가 가
가

〈다섯 번째 소식〉 나를 당황케 한 김판태
7 3 A
A

3 가 9
가 가
“ 21 ? ” “ ” 10
가 21 가
“ 3 ” “ 3 E 가...? ”
가 가
1 가 6
가 가
가 가 30
가 가 7, 8
가 가

〈여섯 번째 소식〉 태권도가 이민의 계기가 된 곽병열
가

가 가 9 가

3 D 가 , 가
 . ,
 가 , 가 가 .
 가 가 , 88 .
 가

50
 <일곱 번째 소식> 행방이 밝혀진 김일섭

E - mail

60
 가
 , 가 .
 71 15 가
 15 가 10

chip . *



- ♣ 김일섭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Joseph kim
 1108 Wooklake Village Dr.
 Saintlouis, M063141
 U.S.A.
 Cell Phone 314-495-0628
- ♣ 김일수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IL S00 KIM
 110-5770 HASTINGS ST.
 BURNABY, B.C. V5B1R6
 CANADA

- ♣ 변민욱 동문
 지난 10월 18일,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영면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이대우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348
 목화맨션 701호
 010-9397-6351
- ♣ 최건일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진주시 칠암동
 칠암한주아파트 101동 504호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하여 이별로 끝난다. 만남은 기쁘고 행복이며 이별은 슬프고 괴로움이며 허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八苦의 하나로 愛別離苦를 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다. 이별가는 언제나 슬프고, 이별주는 쓰다.

또한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인 동시에 헤어짐이다. 이별 없는 인생이 없고, 이별 없는 만남이 없다. 만남은 이별의 시작이다. 그래서 生者必滅이요 會者定離라고 하였다. 이것은 불교의 원리이며 존재의 영원한 진리다.

인생은 無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70, 80년 살다 가야하는 나그네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땅위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본래 자기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별의 극치가 죽음이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헤어짐이다. 그래서 訣別과 永眠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 오로지 시간만이 치유해주는 슬픔이다. 형체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친구 변민욱 형이 홀연히 떠나는 슬픔을 겪으면서 짐짓 머지않아 나의 차례가 오겠구나 하는 想念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정을 두지 말고 정을 붙이지 말라고 하였다. 죽음은 정이 단절이고 죽는다는 것은 정이 아주 끊어지는 것이다.

무릇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운 친구들이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한해가 가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앞으로 몇 번 맞이할 수 있을까, 생일을 당할 때마다 앞으로 몇 번 가질 수 있을까 지레 생각하게 된다.

삶의 길목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고,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삶의 한계상황이다. 죽음은 예외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언젠가 헤어질 때는 泰然自若하게 죽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참석자

-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동열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채열
 김태욱 김한경 박소학 박영환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변중일 손기홍 손동개 송인창
 우용태 이무일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최광수 황희생 김일수(캐나다) 이상40명

· 치아성형 · 치아미백 · 심미보철 · 구강외과
 · 잇몸질환 · 레이저치료 · 총치, 신경치료

하 늘 치 과

원장 김효선(구해룡의 며느리)
 055-286-7528

장원시 사림동 105-1
 사림플라자 2층
 FAX : 055-264-7528

티미한 날 보고 3학년C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하는데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다. 아무리 기억을 다잡아도 담임선생님이 어느 분이셨는지 기억이 도대체 없고 겨우 생각난다는 게 내 옆에 있던 최철림과 내 뒤에 앉아 있던 이재현까지는 생각이 어

졸입50주년을 앞두고
미리 만나보는
그때 그 친구들] 3 C

장정치

렵풋한데…….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참말로 한심할 노릇이다. 세월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를 일이지만 하여간 한심하기는 짝이 없다. 하는 수 없이 어디에다 처박아 두었는지도 모를 만큼 훌대를 한 졸업앨범을 은밀히 감춰 뒀던 복권을 찾듯 눈에 불을 켜고 부라부라 찾아 헤맨다. 켜켜이 쌓인 낡은 시간들 속에서도 용

케 옛날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니 너무나 감격스럽구나!!

부산에 있는 김대균 친구, 기억이 가물거리는 홍성표, 마산합성동에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는 박종근, 마스크를 둘러쓰고 이마에는 돋보기 같은 렌즈로 콧구멍 콧구멍 목구멍 구멍이라는 구멍은 모두 쑥셔보는 최길홍 원장, 색시 같은 모습의 강이성,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는 조창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김채열, 이렇게 한 줄만 훑어봐도 이친구가 정말 우리 반이었더라 말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줄의 문호기는 부산에서 교직생활로 잔뼈를 키웠고, 주윤식은 기억이 가물가물, 이종현은 20회에서 놓고 있을 테고, 김형수는 잠수를 탄지 오래고 손승복은 수문장으로 깃발을 날렸는데 동두천에서 무얼 하는지, 조용민은 우리가 덕을 좀 많이 봤지 시험 칠 때마다 시험지를 공개해 주었으니까, 암전했던 김국치는 마산에서 교장으로 퇴임했지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순영 역시 성남에서 약국을 한다는데 만날 길이 까마득하고, 뭐가 바쁜지 최범기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당을 잡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승웅은 작년에 소리소문도 없이 저승으로 갔고, 진해가 고향인 박영희도 소식두절 상태, 항상 기분 좋은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나길보, 부산에서 건설업을 했다는 천성태, 키는 작아도 야구계를 주름잡았던 날쌔돌이 이상진, 다음 장을 넘기면 내 옆자리 최철림, 교방동 일원에서 예비군들을 후려잡았던 김석백, 21세기의 카수 이무일, 그라고 지금까지도 나



FotoGallery

신마산 댕거리에 있던 화력발전소에서 -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중시절, 화력발전소에 근무하시던 이종섭 본부회장의 형님 덕분에 견학을 할 수 있었다.

맨 왼쪽이 이종섭,
그 오른쪽 뒤에 있는 얼굴이 고정분,
그리고 편집장 제갈선광,
그 뒤로 약간 내민 얼굴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와 악착같이 붙어 지내는 신용보가 있고, 이름이 같았던 진정치 역시 소식두절상태다. 교장으로 퇴임한 점잖은 정종필, 마산시청에서 제대한 정안정, 한국중공업에서 땀땀 날렸던 강수성, 서울의 우리 사형 김영웅, 노대봉 이 친구는 우째 사는지 아무도 모르고, 손재주가 좋았다는 제한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김영, “무기여 잘 있거라”의 노랫말처럼 같은 서클의 황일웅, 스포츠맨 김순택……. 김갑명 친구도 소식이 깜깜이다, 이광웅은 20회에서 놀고 있을 것이고 김기정은 진해 바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드디어 참 착하고 아주 순진했던 내 모습이 보이고, 옆에 있는 서인교도 소식이 강통이다, 아깝게도 승천을 하지 못한 인물덩어리 이무웅(상철) 친구, 하봉규도 북망산천으로 가고 없다, 남원일은 부산에서 잘살고 있다는데 보기가 좀 어렵고, 공행부는 어디서 뭘 하는지 캄캄 굴 안이다, 인정 많은 이아인 성님, 북쪽이 고향이었지 허환, 충청도에 떨어져 있어 외로움을 타고 있는 심재한, 노가다 심장을 오래 했던 이상환, 김병석 이 친구는 마고 선생질까지 했는데도 얼굴보기가 어렵고, 이종길! 대감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지 않든가 서장실 찾아갈 때 나도 목에 힘을 좀 주었지. 임영훈은 어느 촌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르겠고, 안산에서 세무법인 대표로 이름 떨치고 있는 변판석, 박진석은 서울에서 한진전자 대표로 오랜데 만나본 기억이 가물거린다. 내 바로 뒤에 앉았던 이재현은 부산에서 한번 만나기는 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강현중도 20회에서 잘 노실 거고, 사이클로 전국에 이름을 날렸던 이종량은 지금은 마산사이클연맹 회장님이다. 송길영은 부산에서 약국을 한다는데 하도 멀어 득볼 일이 별로 없다. 범한금속 사장직을 내 놓고부터는 산 꾀이 돼 버린 김선규, 박영일은 사라져 버렸고, 다음은 우리의 4총사 서울역장을 지낸 김영환, 조신일은 옛날에 탄 세상 사람이 되었고, 김남수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꽤 잘 하드란다, 마지막 정영운도 하늘나라로 날아 가 버렸다.

그 밑에 있는 싸인지 너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 숨씨 아이가. 처음에는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서로 뺏고 뺏다가 찢어져 후닥다 새로 만든 작품이라 좀 어설피기는 하지만…….

이렇게 63명의 면면을 다 훑어 봤는데 정리를 해 보면

서울지역: 김영웅 김영환 박진석 변판석 이상진 이상환 이순영 이승웅 이종길 조용민
 최철림 황일웅 손승복 허환(14)
 부산지역: 김대균 나길보 남원일 문호기 송길영 이재현 제한규 조창제 천성태(9)
 외국 : 김남수(1)

북망산천: 김영(서울) 박영일 이승웅 정영운 조신일 최범기 하봉규(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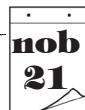
소식불통: 김형수 김갑명 공행부 심재한 서인교 임영훈 진정치(7명)
 강현중 이광웅 이종현(3명) 그 외 마산지역에 23명이 잘 살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아 너그들은 아직도 그저 하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여 코빼기도 보여 주지 않은가? 너그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우째 해야 알아 들었노!! *

2011년 11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월) 오후 6시30분
 장소 : 쌍용복집(246-6866)
 오동동 기산아파트 탐마트 근처



부인회

일시 : 21일(월) 12시 30분
 장소 : 고바우집(245-7430)
 한국투자증권 앞 골목